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시민 의견 청취

시, 사업 추진 방식·소각 방식 등 의견 수렴 나서

전주시가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기반 시설인 만큼 정책 계획 수립에 앞서 전주시민과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분야별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관 공문 발송을 통해 전주시의회 의원과 환경 전문가 등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제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추진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한국환경

가 등 분야별로 이뤄지며 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 추진상황 설명 △사업 추진방식(재정/민간투자) 및 소각방식에 대한 객관적 설명 및 비교 자료 제공 △질의응답을 통한 충분한 속의 과정을 거쳐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8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추진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한국환경

공단의 기술 진단과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신규 건립이 타당하고, 폐기물처리량은 1일 550톤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규 건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기술과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향후 20년 이상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환경 기초시설"이라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K-푸드연구센터는 현지시간으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Global Challenge of Korean Food: Culture & Science of Bibimbap' (한국음식의 글로벌 도전: 비빔밥의 문화와 과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프랑스서 비빔밥 가치 조명

전주시·전북대, '비빔밥의 문화와 과학' 학술대회 개최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의 대명사인 비빔밥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K-푸드연구센터는 현지시간으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Global Challenge of Korean Food: Culture & Science of Bibimbap' (한국음식의 글로벌 도전: 비빔밥의 문화와 과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세계영양학회(IUNS-ICN 2025)의 국제학회 세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션은 시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전주 음식과 문화(K-푸드)의 확산과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비빔밥'이라는 대표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조명했다.

세션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와 학회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90분 동안 열띤 분위기를 진행했다.

먼저 박용순 교수(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좌장을 맡은 1번째

세션에서는 신다연 교수(인하대학교)와 차연수 교수(전북대학교 석좌교수)가 각각 '비빔밥의 문화적 가치와 글로벌 식문화로서의 확장 가능성'과 '비빔밥의 건강기능성과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용순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선 박사(국립암센터)와 황지운 교수(상명대학교), 박용주 교수(전남대학교), 이해정 교수(가천대학교) 등 식품영양·식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빔밥의 국제적 가치와 유산 등재 가능성,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펼쳐졌다.

김미나 전북대학교 교수(K-푸드연구센터장)는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 자연, 공동체 정신이 담긴 상징"이라며 "이번 세션을 통해 세계 전문가들과 비빔밥의 과학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철회로 예산 낭비 차단

재활용품 반입량 감소·투자 비용 증가로 사업 재검토 결과 조치

전주시가 처리용량 부족에 대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증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재활용품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과 처리 방법의 다각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에 약 3만㎡ 부지에 189억을 투자해 기존 60톤/일 처리용량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130톤/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증설계획 수립 당시에는 전주시 인

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가 예상됐다.

또 외주 처리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시 처리 비용 과다 소요(연간 58억 원 정도) 등의 사유로 시설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당시 예상과는 달리 최근 재활용품 반입량이 기존 일일 83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고, 도내 재활용 처리업체 증가 등 재활용품 처리 여건 변화 및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 했다.

그 결과 시는 △인구 감소 및 탄소 중립 실천 등에 따른 재활용품 반입량

28일 밝혔다.

시는 재활용품 발생량(83톤/일) 대비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 시설용량(60톤/일)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해 시설 증설을 추진해 왔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약 3만㎡ 부지에 189억을 투자해 기존 60톤/일 처리용량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130톤/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증설계획 수립 당시에는 전주시 인

감소 △도내 처리업체 증가에 따른 비상 대응 여건 확보 및 처리비용 절감 등에 의해 시설 증설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의 외주처리량이 감소하고, 입찰판매를 통해 연간 약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변화된 여건도 증설 필요성을 낮췄다.

이에 시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더불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증설사업을 중단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 위해 지역기업과 소통

전주시가 K-드론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기업과의 소통에 나섰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

28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기업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개최되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을 다짐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

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드론축구월드컵 홍보 영상 시청 △드론축구월드컵 추진상황 보고 △드론축구월드컵 후원 등 기업 참여 협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참여한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이나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월드컵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호성동, 취약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은 통장협의회(회장 이영수)의 협조를 받아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호성동 통장협의회 회원 9명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가정 내 청소와 불필요한 물품 정리 등을 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생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가정 내 편의를 도모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사랑상품권 총 13% 할인 혜택 제공

전주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데지카드) 이용시 총 13%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주사랑상품권을 충전하는 전주시민에게

는 3%의 충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여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충전인센티브와 캐시백을 합쳐 13%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3% 충전 인센티브는 올 연 말까지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https://www.daelasoo-jj.com



본 콘텐츠에 사용된 CG 이미지 및 가변형 내용 등은 사전에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대라수 전속모델
배우 유인나



하늘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생활

ALL IN SKY

전주완주 대라수 綏 어썸브릿지